

新出字形의 접근방법과 판독유형

조성덕*

차례

1. 서론
2. 신출자형의 접근방법
 - 1) 원전텍스트 활용
 - 2) 유사내용 활용
 - 2) 운서자료 활용
3. 자형분석에 의한 판독유형
 - 1) 異體字
 - 2) 異形字
 - 3) 音借字
 - 4) 誤字와 校勘
4.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고문헌을 접하는 연구자들이 신출자형을 판독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신출자형의 판독을 위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므로 연구자의 성향이나 전공에 따라 편리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

2장에서는 신출자형의 접근방법을 ‘원전텍스트’, ‘유사내용’, ‘운서자료’ 세 가지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원전텍스트’에서는 13經과 諸子百家와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차적으로 원전텍스트를 검토하고, 전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 <고전DB> 등 각종 DB를 통해 유사내용을 확인하는 방법과 유사자형의 비교를 통해 검토하고, ‘운서자료’에서는 韻文에 해당하는 자료의 경우 韻字를 검토하여 해당 자형을 검증하는 방법 등을 소개하였다.

* Ideographic Rapporteur Group(IRG) 전문위원 / E-mail : isanjo@empas.com

3장에서는 자형분석을 통해 판독한 유형을 ‘異體字’ ‘異形字’ ‘音借字’ ‘校勘’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이중 유형이 많은 ‘異形字’는 새로운 구조, 簡化, 繁化, 異動, 類化, 對替, 追加 등으로 세분하였다. ‘誤字와 校勘’에서는 한국고전번역원의 <교감지침>을 참고하여 誤字로 간주하여 교감처리를 할 것인지, 이체자로 인정하여 바로 대체할 것인지가 애매한 유형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주제어 新出字形, 異體字, 異形字, 字形, 構件

1. 서론

고문헌을 접하는 연구자들은 종종 난해한 글자에 부딪힌다. 필사본은 말할 것도 없고 목판으로 새기거나 활자로 명확하게 鑄造한 글자인데 무슨 글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몇 번이고 사진을 뒤적거리다가 『漢語大字典』의 <異體字表>와 臺灣 教育부의 <異體字字典>¹⁾을 찾아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高麗大藏經異體字典』을 찾기도 한다. 그래도 없으면 결국은 앞뒤 문맥을 살펴 자형을 판단한다. 더구나 사전에 나오지 않는 자형을 판독할 때는 매우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이다. 필자는 이 분야에서 다년간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다른 연구자들이 신출자형²⁾을 판독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본고는 필자가 신출자형을 판독하기 위해 접근한 방법과 자형의 판독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1) 이하 <異體字字典>

2) 본고에서 말하는 신출자형은 현재 웹상에서 검색이 가능한 한·중·일 통합한자[CJK Unified ideographs] 20,902자와 한·중·일 확장한자[Extension_A] 6,582자에 포함되지 않은 자형을 의미한다.

2. 難字의 접근방법

難字의 판독을 위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연구자의 성향이 나 전공에 따라 편리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106韻의 순서를 모르는 사람이 『隸辨』에서 자형을 찾거나 『龍龕手鏡』의 部首順序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이 책으로 漢字를 찾는다면 시간만 많이 들고 성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 『康熙字典』 214部首의 명칭과 획수를 암기해 두거나 부수를 제외한 한자의 기본 구성 요소의 명칭을 학습해 두면 신출자형을 판독하는 작업이 수월해질 것이다.

이외에도 신출자형을 판독하는 작업으로는 원전텍스트, 유사내용, 운서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1) 원전텍스트 활용

고문헌에는 각종 고전 자료를 재인용하거나 변용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十三經, 諸子百家 등에서 인용한 내용이 자주 보인다. 따라서 기존에 입력된 텍스트를 이용하는 방법은 전거를 찾을 때도 도움이 되지만 신출자형을 판독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면서도 쉬운 방법 중 하나이다.

(1) 十三經

고문헌에서 경전의 인용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므로 十三經 원전텍스트의 검색을 활용하여 신출자형을 판독할 수 있다. 특히 문집의 경우 四書五經의 원전을 다양한 분야에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출자형이 나타난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經傳을 인용했거나 인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 𩇛: “其於馬也, 爲善鳴, 爲▼足, 爲作足, 爲的類.” [『韓國經學資料集成』_讀易玩義_120_02_0297].

위 내용의 출전이 『讀易玩義』임을 감안하여 『周易』의 원문을 검색하면 『說卦傳』에 위의 용례와 동일한 내용이 검색된다. 원전에 ‘爲▼足’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 자형은 ‘𩇛’의 이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는 <한적입력기>³⁾에서 ‘馬’와 ‘𠂔’이 포함된 자형을 검색하여 상하구조로 만들어진 글자를 찾으면 ‘𩇛’ 한 글자가 발견된다. 이 내용을 근거로 <고전DB>⁴⁾에서 검색하면 동일한 결과를 찾을 수 있다. 이와 동일한 유형으로 ‘𩇛→𩇛’가 있다.

§. 𩇛: “是癸巳春, 言結其▼, 載詠束薪, 洞房花月.” [mm_b_070_383d:5].⁵⁾

위 내용은 부인에 대한 祭文 중에서 결혼생활을 서술한 것이므로 『詩經』에서 ‘結其▼○’를 검색하면 『爾風 東山』에 “之子于歸, 皇駁其馬, 親結其▼, 九十其儀,”라는 구절이 나온다. 또 <고전DB>를 검색하면 결혼의 의미로 ‘結襜’ 또는 ‘結縵’가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을 근거로 ‘𩇛’가 ‘襜’의 ‘ㄸ’와 의미가 유사한 ‘巾’으로 대체한 이체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동일한 유형으로 ‘紙-紙’ ‘幙-縵’ ‘縵-襜’ 등이 있다.

3) <한적입력기>는 팔만시스템에서 개발한 <팔만한적입력기>를 가리킨다. 입력방식은 漢字를 構件별로 쪼개어 해당 구건의 한글 음가를 입력하면 구건의 음가에 해당하는 한자목록이 나타나는데 이 중 입력할 한자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4)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를 가리킨다.

5) [mm_b_070_383d:5]에서 ‘mm’은 한국문집총간, ‘b’는 속집, ‘070’은 집수, ‘383’은 쪽수, ‘d’는 段數, ‘5’는 行數를 가리킨다.

§. 稊: “惟神司農, 播穀其始, 實方實苞, 維▼維芑.” [mm_b_069_097c:4].

위 내용은 농사에 관련된 詩이므로 『詩經』에서 ‘實苞’를 검색하면 「生民」에 “誕降嘉種, 維秬維秠, 維~~稊~~維芑, 恒之秬秠, 是稷是畝.”라는 구절이 나온다. 따라서 ‘稊’는 ‘糜’의 아랫부분 ‘禾’와 자형이 유사한 ‘木’을 대체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동일한 유형은 다양한 글자에서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麻~~’이 포함된 ‘歷-歷’ ‘曆-曆’ ‘糜-糜’ 등의 자형과 이와 자형이 유사한 ‘~~榘~~-榘’ ‘~~菌~~-菌’ 등에서 나타난다.

§. 牝: “夜夜房星照有輝, 更兼步社運神機, ▼牝三千猶小可, 萬羣雲錦漸看肥.” [mm_b_082_514b:2].

‘牝三千’을 『詩經』에서 검색하면 「定之方中」에 “匪直也人, 秉心塞淵, ~~駉~~牝三千.”라는 내용이 보인다. 따라서 ‘牝’는 ‘駉’의 ‘馬’가 ‘牝’의 영향을 받아 ‘牛’로 대체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고전DB>에서 ‘牝’의 오른쪽 음가를 유추하여 ‘래牝’으로 검색해도 100건의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 諸子百家

§. 夔: “鶴長鳧短無相差, ▼少蚘多妄自誇, 牢臥一窗隨意老, 眼前須辦酒如波.” [mm_b_012_487c].

위의 내용은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마라』를 알고 있다면 『莊子』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근거로 ‘○蚘’를 검색하면 「秋水」에 “夔憐蚘, 蚘憐蛇, 風憐目, 目憐心.”라는 구절이 나온다. 따라서 ‘夔’는 ‘夔’가 뒤에 있는 ‘蚘’의 영향을 받아 ‘虫’이 추가된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⁶⁾ <고전

DB>에서 ‘𦉳’의 음을 ‘기’로 유추하여 ‘기𦉳’을 검색하면 ‘夔𦉳’이 29건 나오고, ‘夔〇𦉳’로 검색하면 연계어가 70건 검색된다.

§. 𦉳: “勉子勉學而遂開▼帷, 義之貞於救世也.” [『梨山集』_徵_175].

위 자형은 위에서 언급한 ‘𦉳-縹’와 동일한 유형으로 ‘縹’가 뒤의 ‘帷’의 영향을 받아 ‘糸’를 ‘巾’으로 대체한 것이다. 『莊子』『漁父』에 “孔子遊於縹帷之林, 休坐乎杏壇之上, 弟子讀書, 孔子絃歌鼓琴.”라고 하였다. 또한 <고전DB>에서 검색하면 ‘縹帷’가 209건 나온다. 이를 근거로 ‘𦉳’가 ‘縹’의 유화라고 판단할 수 있다.

2) 유사자료 활용

신출자형을 판정할 때 이본이 있는 경우는 이본대조를 통해 자형을 판독할 수 있으나 신출자형이 나타나는 문헌은 유일본인 경우가 많아 자형판독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유사 자형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해당 자료가 번역되었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많은 국역서가 DB에서 서비스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경전이나 문집의 경우 동일한 단어를 약간씩 변형하거나 앞뒤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몇 번의 다양한 사이트의 검색을 통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유사내용 활용

§. 𦉳: “懿敬世子▼後, 上育養者山君[成宗]于宮中, 者山君天資穎異

6) 조성덕, 『한국 문집 소재 異體字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71면.

器度雄偉, 上特愛之.” [『國朝編年』 v03;48a;10].

위 자형은 ‘喪’의 아랫부분의 이체인 ‘𠂔’가 ‘口’로 변한 것으로 ‘厶’와 ‘口’를 혼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 ‘ㄗ’가 ‘口’로 바뀌는 ‘臺-臺[mm_a22;261a;9]’, ‘臺-臺[mm_a268;187b;2]’ 등이 있다. 이 글자가 한국학중앙연구원 사이트에는 ‘來’자로 교감처리가 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동일한 내용인 『國朝編年』<v03;48a;10>과 『叢史』<v2;2a;2>의 『成宗故事』에도 ‘喪’으로 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참고하여 ‘喪’의 이체로 판독한다.

§. 垂: “尹光柱三男, 恒基進士, 性基, 心基, 女適權▼.” [mm_a_242_045d;7].

위 자형은 동일한 내용인 『素谷遺稿』 ‘尹男恒基, 性基, 心基, 女適權垂.’ [mm_a223;259;5]에서 명확하게 ‘垂’로 되어 있으므로 ‘垂’의 이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垂’의 이체로 ‘垂[mm_b092;084c;2]’가, ‘睡’의 이체로 ‘睡[mm_b082;303a;2]’가 사용된 용례와 『隸辨』의 ‘垂’와 『字學三正』의 ‘垂’의 형태를 통해서도 ‘垂’를 ‘垂’의 이체로 판단할 수 있다.

§. 步: “葬于楊州峨嵯山南麓。距其先塋。僅數百▼。” [mm_b082_354b].

이 자형과 유사한 용례는 아직 다른 문헌에서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歲’의 이체가 ‘歲’이므로 ‘止’를 ‘山’으로 바꾸고 동일한 자형을 중복해서 안정감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駭’이 ‘駭’으로 바뀌고 다시 동일한 획이 추가되어 ‘駭’으로 바뀌는 과정과 유사하다. 따라서 윗부분에 ‘山’이 하나 더 추가되었지만 ‘步’인 것이다. 또 <고전DB>에서 ‘僅數百步’를 검색하면

8건, ‘數百步’를 검색하면 564건이 나온다. 단위를 나타내는 ‘步’와 가장 유사한 글자가 ‘步’이기 때문에 문맥을 살펴 ‘步’의 이체로 판독하였다.

(2) 유사 자형 활용

§. 𠂔: “東京雄筆掃名流, 妙歲天▼拜玉梳, 海上身歸投象笏, 臺端路隔贊鴻猷.” [mm_b_064_058a].

위 자형의 오른쪽 ‘犀’가 ‘犀’의 이체라는 것을 알면 쉽게 판독할 수 있다. 만약 ‘犀→犀’의 관계를 모를 경우 <異體字字典>를 통해 검색하면 『偏類碑別字』에 ‘犀’의 이체로 ‘𠂔’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𠂔: “苟有一分人心, 豈至此極, 至若跳▼沒覺之徐, 相教受嗾於致英, 依窩於致英.” [『公車類覽』 v4:44a:10].

위 자형의 앞부분은 ‘𠂔’ 아래에 있는 자형을 ‘衣’가 변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사실은 ‘𠂔’에서 ‘口’가 ‘一’의 형태로 생략된 것으로 ‘𠂔’의 이체이다. 따라서 이 자형의 원래 자형은 ‘𠂔’으로 ‘還’이 ‘跳’의 영향을 받아 변형된 형태이다.

§. 狎: “詩云, 我出我車, 于彼牧矣, 自天子所, 謂我來矣, 王命南仲, 往城于方, 赫赫南仲, ▼狎于襄.” [『古代歷代撮要』 v01:47a:11].

위 자형은 ‘狎’의 오른쪽에 있는 ‘𠂔’의 왼쪽이 길게 늘어져 다른 글자인 가 의심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嚴’의 俗字로 ‘𠂔’을 사용한다는 것에 근거할 때 이 글자가 ‘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𠂔’이 본래의 뜻으로 사용될 때가 있으나 뒤에 ‘狎’이 있기 때문에 혼동의 여지가 적다. 더구나 출전

이 『詩經』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詩經』의 원문 텍스트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동일한 유형으로 ‘巖-~~ㄹ~~7)과 ‘巖-~~ㄹ~~8)이 있다. 위의 자형은 ‘巖’의 아래를 모두 생략하고 ‘𠂔’으로만 사용한 것이다.

§. ~~ㄹ~~: “自此山益秀水益清, 峽裏開野, 多民畜饒雪屋, 石田燒薙, ~~▼~~人耦畊, 是唯樂野, 於是循豐田之區, 北踰葛古之岡, 不多步下平行.”
[mm_b_113;573d;2].

위 자형은 ‘壽’의 고자이면서 ‘疇’의 고자이기 때문에 ‘壽’의 이체인 ‘𠂔’을 알면 이해가 쉽다. ‘𠂔’의 상하에 있는 ‘工’이 생략되어 ‘一’의 형태로 변한 것으로 ~~ㄹ~~ → ~~ㄹ~~ → ~~ㄹ~~ → ~~ㄹ~~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康熙字典』에도 ‘疇’의古字로 ‘壽’ ‘𠂔’의 두 가지 자형이 나온다.

3) 韻統자로 활용

詩나 祭文 등 韻文에서 신출자형의 위치가 韻字에 해당한다면 자형을 판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 ~~ㄹ~~: “見善思遷期至善, 有咎思改期無咎, 莫把時日謾愒翫, 須從師友勤矯~~▼~~.” [mm_b_066_016c].

위 자형은 類化에서 논의할 수도 있으나 글자의 위치가 韻字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 논의한다. 이 작품의 운통이 ‘尤’이므로 韻書에서 ‘~~ㄹ~~’와 비슷하거나 오른쪽에 ‘柔’가 포함된 글자를 찾으려면 ‘~~ㄹ~~’ ‘~~ㄹ~~’ 두 글자

7) “豈於此莫重~~ㄹ~~之重 或敢不戒于火哉” [『公車類覽』 v2:20a:7].

8) 조성덕, 앞의 논문, 195면.

로 검토대상이 줄어들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부분의 음을 ‘유’라고 가정하고 <고전DB>에서 ‘矯유’를 검색하여 오른쪽이 ‘柔’인 자형을 검토하면 ‘바로잡다’의 뜻인 ‘矯揉’가 627건이 나오는데 본문의 앞뒤 내용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𢱱’은 ‘揉’가 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자형분석에 의한 판독유형

자형분석에 대한 분류는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필자는 신출자형의 판독 대상과 용례를 감안하여 크게 異體字, 異形字, 音借字, 誤字와 校勘으로 분류하여 검토를 진행하였다.

1) 異體字

§. 𢱱: “至若小邦, 常飲▼和, 最被覆露, 苟此輿情之得徹, 庶幾寵施之.” [『同文彙考』_原編續_軍務].

위 자형의 오른쪽에 있는 ‘富’은 원래 ‘福’과 ‘答’의 古字이지만, 다른 글자의 일부로 사용될 때에는 ‘富’의 이체로 사용되는데 ‘富’은 ‘享’의 고자이다. 따라서 이 자형은 ‘富’의 이체로 판독한다. 이와 동일한 유형으로는 ‘孰→孰’, ‘熟→熟’, ‘郭→郭→郭’ 등이 대표적이다.

§. 𢱱: “空濛深處滿, ▼曳水邊飛, 陰沴那能久, 須臾日迸暉.” [mm_b_106_011c].

위 자형의 오른쪽은 ‘隆-隆’의 유형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𢱱’을 ‘隆’의

이체로 파악할 수도 있다. 그러나 『龍龕手鏡』에도 ‘搖’의 이체로 ‘搖’가 있으며, ‘缶’의 이체로 ‘缶’가 사용되는 것을 감안할 때 ‘搖’의 이체로 유추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고전DB>에서 ‘搖曳’를 검색하면 ‘龍舟搖曳水中中央’, ‘柳梢搖曳水風斜’ 등 172건의 용례가 나오므로 내용을 확인한 후 ‘搖’의 이체로 판독한다.

§. 遷: “上答曰, 世祖乃當代四親之主, 功亦莫大, ▼之未安, 欲於延恩殿別祔, 仁宗何如, 洪彥弼等論其未安, 至於四啓始允之.” [『記聞』 v1:34a:9].

위 자형은 ‘起’의 이체인 ‘起’와 ‘卷’의 이체 ‘卷’를 알면 판독할 수 있는 자형이다. ‘己’나 ‘巳’이 다른 글자의 아래에 있을 때 ‘尺’의 형태로 변하는 현상으로 해당 글자가 매우 적다. 이와 동일한 유형으로 倦-倦 [mm_a_019;132c:3], 起-起 [mm_a1;289c:8], 輶-輶 [『記聞』 v1:61b:6] 등이 나타난다.

§. 鼎: “然而一府人心▼沸波湯, 無以鎮定蓼節, 已晚莫重公包, 亦有失時之慮……” [『公車類覽』 v13:39b:4].

‘鼎’의 이체는 아랫부분이 ‘𠂔’ ‘𠂔’ ‘𠂔’ ‘井’의 4가지 형태로 변화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鼎은 주로 ‘鼎’의 형태로 많이 사용된다. 위의 자형은 ‘鼎’의 형태에서 가운데 두 획을 생략하여 한 획으로 처리한 것이다. 어떤 자형의 이체를 판독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변하지 않은 부분의 자형을 먼저 검토하여 그것과 유사한 글자를 찾는 것이다. 위에 ‘目’이 있고 아래에 ‘鼎’나 ‘𠂔’이 포함된 자형을 字典 등에서 검색하면 ‘鼎’ 한 글자만 나온다. 이를 근거로 <고전DB>에서 ‘鼎沸’를 검색하면 233건의 용례가 나오므로 내용을 확인한 후 ‘鼎’의 이체로 판독한다.

2) 異形字

(1) 새로운 구조

§. 𪗇(𪗇): “讀四書之法, 毋過求, 毋巧▼, 毋旁搜, 毋曲引.” [『靑旅文集』 권3_5a].

위 내용의 출전은 『北溪字義』이다. 이와 동일한 내용이 『梅山集』 [mm_a_295_537d], 『西山集』 [mm_a_321_252a], 『槐潭遺稿』 [mm_b_1005_219c] 등에도 나오는데 ‘𪗇’에 해당하는 글자에 모두 ‘𪗇’으로 되어 있다. 이 자형은 ‘𪗇’에서 ‘𪗇’의 오른쪽 ‘宀’를 생략한 ‘𪗇’의 이형자인 ‘𪗇’에 아래 부분의 ‘金’이 합쳐져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𪗇’의 이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구조의 형성단계를 알 수 있는 ‘𪗇’과 ‘𪗇’의 자형이 나타나며 이와 동일한 유형으로 ‘𪗇-𪗇’이 있다.

(2) 자형 簡化

§. 𪗇: “帝▼高辛氏, 名變, 史記作岌, 祖少昊, 父蟠極.” [『古今歷代撮要』_1冊;14b;3].

위 자형은 바로 뒤에 나오는 ‘高辛氏’만 참고해도 ‘𪗇’의 이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자형 상으로도 ‘一’ 아래 ‘宀’가 포함된 글자[𪗇]는 ‘𪗇’이 유일하다. ‘𪗇’의 변화원리는 다음과 같다. 윗부분의 𪗇는 중간 획들이 생략되어 ‘冂’의 형태가 된 것이다. 중간에 있는 ‘宀’는 ‘𪗇-𪗇’에서와 같이 ‘宀→宀’의 과정을 거쳐 생략하여 ‘人’으로 변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자형의 윗부분이 ‘冂’의 이체와 유사한 ‘冂’의 형태가 된 것으로, 매우 드문 자형이다. 이와 동일한 유형으로 ‘興-興’ ‘𪗇-𪗇’ 등이 있다.

또는 좌우로 바꾸었을 때 그 자형이 기존에 있는 것인지를 검토하는 중요하다. 그 이유는 기존 자형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을 뿐인데 전혀 새로운 글자처럼 인식되는 자형이 종종 발견되기 때문이다.¹¹⁾

§. 𡗗: “臣之天廢之疾, 十年于茲, 逐▼增劇, 去盲無幾, 迷亂摸索之狀, 悉露於前席出入之際.” [公車類覽v1;43b;10].

위 자형은 처음에는 특이한 자형처럼 보이지만 구조를 분석하면 단순 구건의 이동임을 알 수 있다. ‘歲(歲)’가 ‘山’과 ‘威’의 상하구조에서 ‘𡗗’은 ‘示’로 변하여 ‘威’에서 분리된 뒤 ‘山’과 상하구조를 이루고 ‘戊’는 오른쪽에 별도로 떨어진 구조로 매우 드문 경우이다.

(5) 구건 類化

유화는 다른 글자로 대체했을 때 대부분 원래의 글자와 혼동이 생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간혹 의미가 달라지는 글자로 유화현상이 일어나 原意를 파악하기 위해서 원래의 글자를 검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 桃: “桃柷控擗, 奏之堂下之樂而鳴球之並用者, 樂取其和同也.” [m_m_b111;484b;1].

위의 문장에서 ‘桃’는 혼한 자형으로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류가 없어 보인다. 또한 옆에 글자들이 모두 ‘木’이 부수여서 ‘桃’ 역시 교정에서 지나칠 수 있는 글자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유의해야 한다. ‘桃柷’은 악기 이름으로 ‘鞀柷’ 또는 ‘鼗柷’로 써야 하는데 뒤 글자인 ‘柷’의 영향을

11) 조성덕, 앞의 논문, 94면.

받아 ‘鞞’가 ‘桃’로 변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내용이 『記言』에서 『樂通』을 언급한 “**桃**祝拊控楫似萬物”[mm_a_098_170b]에도 보인다. 여기에서도 ‘控’을 자형 그대로 입력했으나 사실은 다른 글자이다. 『荀子』『樂論』을 참고하면 ‘拊’자는 ‘拊鞞’을 가리키는데 ‘控’이 ‘拊’의 영향을 받아 ‘控’으로 바뀐 것임을 알 수 있다.

§. 駟: “…第此不但見失者爲冤, 朝家取人之舉, 反歸駟▼, 豈非可駭可愕者也.” [『記聞』 v9;44a:13].

<고전DB>에서 ‘駟’를 검색하면 ‘駟儉’가 216건 나오고, 이 자형을 <유니코드검색기>에서 코드를 확인하여 검색한 후 <고전DB>에서 駟(U299 B1)를 검색하면 駟駟가 19건 나온다. 따라서 이 자형은 ‘駟’의 영향을 받아 ‘儉’의 ‘亻’을 ‘馬’로 대체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提: “媚之一女棄在民間, 與庶人, 無異孩▼之女, 亦何罪焉.” [『震史記略』 v2_31a_5].

위 자형은 ‘孩’의 영향을 받아 ‘孩提’의 ‘提’에서 ‘扌’를 ‘子’로 대체하여 ‘提’로 변한 것으로 그 용례가 희귀하다.

(6) 구건 대체

가. 뜻이 비슷해 바꾸어 쓴 경우

§. 饗: “……猪一口, 卓席十二張, 酒一▼.[以上五項, 共折價, 銀一百五十兩, 亦由戶部移取.]” [『同文彙考』原編續-哀禮一].

술동이를 헤아리는 단위 중에 ‘爨’이 포함된 글자로는 ‘饗’이 있다. 따라

서 이 자형은 ‘缶’를 ‘金’으로 대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缶’와 ‘金’을 혼용하는 자형으로는 ‘銜-銜’, ‘罇-罇’ ‘罐-罐’ ‘鉢-鉢’ 등이 있다.

§. 糴: “秋熟刈獲, 百物多且有, 青粱爲▼, 早稻以爲酒.” [mm_b_111_431b].

‘食’과 흔히 바뀌 쓰는部首는 ‘米’와 ‘禾’이다. 이 두 부수에 ‘茲’가 포함된 글자로 ‘糴’와 ‘糴’를 찾을 수 있는데 이 중 음식과 직접 관련된 글자는 ‘糴’이다. ‘糴’를 <고전DB>에서 검색하면 18건이 나온다. 이는 모두 ‘인절미’를 가리키는데 ‘青粱[생동쌀]’은 차조의 일종으로 인절미의 재료로 많이 사용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이 자형은 ‘米’를 ‘食’으로 대체한 ‘糴’의 이체로 파악할 수 있다. 참고로 ‘糴’의 이체로 ‘餹’와 ‘饌’ 등이 자형이 있는 것을 참고하면 이해에 도움이 된다.

나. 자형이 비슷해서 바꾸어 쓴 경우

§. 惱: “殿下以今日處分, 出於十分高度, 非出於一時激▼爲教, 而臣有區區迷見, 冒死仰達.” [『記聞』 v10;2a;2].

위 글자는 자형 상으로는 ‘원망할_류’ ‘惱’이다. 그러나 원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惱’의 이체로는 ‘惱’의 형태가 있다. ‘惱’ 형태가 포함된 글자로는 ‘惱’이 있는데 이 글자는 ‘惱’의 이체이다. 이것을 유추하면 ‘卯’와 ‘𠂔’의 생략형은 동일하게 ‘ㄣ’의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思’의 이체가 ‘惇’인 것을 보면 ‘囟’과 ‘田’은 글자의 일부로 사용될 때 통용되는 자형이다. 따라서 ‘惱’는 ‘惱’→‘惱’→‘惱’의 변화과정을 거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고전DB>에서 ‘激惱’로 처리된 자형은 모두 ‘激惱’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 聰: “領相許積, 右相權大運, ▼名筭子. 第於聖上判下之教……”
 [『記聞』 v7:65a;7].

‘卍’의 생략형은 주로 ‘卍’과 ‘大’의 형로 사용되지만 ‘ㄹ’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關-關’, ‘聯-聯’ 등이다. 위의 자형은 ‘ㄹ’을 ‘心’으로 대체한 것으로 이와 유사한 형태로 ‘ㄹ→卍’과 ‘ㄹ→心’ 등이 있다. ‘ㄹ→卍’의 변화는 ‘庶’가 포함된 庶-庶[b081:495a;7], 蹠-蹠[a217:379c;1], 遮-遮[b098:134b;10] 등에서 나타나며, ‘ㄹ→心’의 변화는 羔가 포함된 糕-糕[b091:036d;4], 羔-羔[mm_b_101_234c] 등과 黑이 포함된 黨-黨[a249:275b;4] 등에서 나타난다.

(7) 구건 추가

가. 類化 구건 추가

§. 窺: “俄以四宰轉度支, 謹守▼制, 不事綜理.” [mm_b_069_211a].

위 자형은 앞의 ‘守’의 영향을 받아 ‘規’에 ‘ㄹ’을 추가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구건이 추가되기 이전인 ‘謹守規制’나 ‘謹守○制’로 검색해서 글자를 판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고전DB> 검색결과 南有容의 『雷淵集』 「墓誌銘」에 ‘謹守規制’로 되어 있어 판독을 확정할 수 있다. 이와 동일한 유형으로 蒼雪-蒼雪[mm_b090_100a], 丹症-丹症[mm_b091_247c], 沉醬-沉醬[mm_b_067_316c], 設衰-設衰[mm_b082_356a], 翁訛-翁訛[mm_b_072_338a] 등이 있다.

나. 表意 구건 추가

§. 澱: “近日雨水上流添下, 本鎮江水盡爲▼解, 故自今日爲始, 行人

與牛馬.” [『御營廳謄錄』 v123:2a:5].

위 자형은 ‘灑’과 유사하여 혼동하기 쉽다. ‘灑’은 주로 ‘灑灑’이란 단어로 ‘물이 깊고 넓은 모양’이나 ‘화창한 모양’의 의미로 사용된다. 여기서는 ‘雨水’ ‘江水’과 ‘解’가 이 글자를 판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기서 물과 관련 있는 ‘水’의 영향으로 ‘融’에 ‘녹다’라는 의미가 있음에도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融’ 앞에 ‘冫’를 추가하여 ‘冫融’과 ‘冫灑’ 등의 형태로 쓴 것이다. 특히 이 자형은 ‘冫’도 추가되었지만 ‘冫’과 ‘虫’의 위치가 바뀌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이와 유사한 다른 글자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판독에 신중을 요한다.¹²⁾

§. 饈: “二船踵至, 荐承芳翰, 兼獲佳貺, 深荷厚誼, 館▼舊例, 何待勤示, 土宜菲薄, 莞留爲幸, 統希崇亮, 不備.” [『同文集考』_附編續_進獻四].

위의 자형은 ‘廩’이 ‘館’의 영향을 받아 의미 편방 ‘食’을 추가한 것이다. 이 경우는 단순 유화와 다르게 기존 편방을 그대로 두고 의미 편방을 추가한 것으로 단순 유화에 비해 출현 빈도가 적다.

§. 饈: “則潛取女奴之飯, 和菹而喫之, 有時煨▼而啖之云.” [『承政院日記』 인조 67_195].

위의 자형은 밥을 짓는 용도의 ‘밥솥’이라는 의미에서 ‘食’을 추가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鼎’의 이체 중 하나로 ‘鑊’이 있는데 이는 ‘鼎’의 재료인 ‘金’의 의미를 추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자형은 ‘鼎’의 이체로 볼 수 있다.

12) 조성덕, 앞의 논문, 110면.

3) 音借字

§. 𪛗(𪛗): “柳淳以謀陷大臣[奇自獻], 罪▼坡知流三千里, 勿揀赦前.” [mm_b_008_511c].

위 자형은 지명 ‘갈파지’의 ‘갈’을 표기한 음차이다. ‘갈파지’의 표기는 ‘𪛗坡知’, ‘𪛗波知’, ‘𪛗坡知’, ‘茄坡知’, ‘葛坡’ ‘葛坡知’, ‘加乙坡知’, ‘茄乙坡知’, ‘茄乙波知’, ‘加乙波知’ 등으로 다양하게 보인다. ‘갈’을 한 글자로 표기할 때는 ‘𪛗’, ‘葛’, ‘𪛗’, ‘𪛗’로, 두 글자로 표기할 때는 ‘加乙’, ‘茄乙’로 나타난다.

§. 𪛗: “슬피우는 斗▼시는 소리마당 不如歸라” [『回一心極樂文』_AA00494_9].

위 자형은 ‘杜鵑’의 ‘鵑’을 표기한 음차이다. ‘두견새’의 일반적인 한자 표기가 ‘杜鵑’인데 여기서는 ‘冑’ 대신 음이 ‘견’인 ‘肩’으로, ‘鳥’는 의미가 비슷한 ‘虫’으로 바꾸어 ‘𪛗’으로 쓴 것이다.

§. 𪛗: “太雨發水, 把父母房屋, 俱都沖去, 我因孤住草簾▼, 在上面糊裏.” [『同文彙考』_原編_卷之77_賻恤].

‘躺’의 음이 ‘당’이므로 음가를 나타내는 ‘尙’ 대신 이 글자와 음과 동일한 ‘党’으로 대체한 것이다. 이와 동일한 유형으로 ‘黨’이 있다.¹³⁾ ‘黨’과 ‘党’이 동일한 글자이므로 혼용한 것이다.

13) 正祖, 『同文彙考』, 『原編續 漂民一 我國人』

4) 誤字와 校勘

漢文으로 쓰인 원전을 번역하거나 漢文原典의 DB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오자와 교감처리이다. 어떠한 경우에 교감처리할지에 대해 사람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문 번역과 원본의 정본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교감에 대한 원칙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직 정리되지 못한 상태이다. 우리는 흔히 伏-伏, 沮-涅, 韻-韻, 商-商, 筆-筆 등의 형태는 교감처리하지 않고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을 모든 글자에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음 내용은 2013년 교열을 마친 자료의 교감주 일부를 검토한 것이다. 교감주는 주로 필사본이나 후기 활자본 등에서 많이 나타나지만 목판본이나 금속활자에서도 나타난다. 이는 글자를 편리하게 쓰기 위해 행초를 해서 화하는 과정이나 유사자형으로 대체할 때, 필획을 줄이는 과정에서 다른 글자로 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글자로는 鑣-鑣, 敵-敵-敵, 股-股, 却-却, 鉄-鐵, 墜-墜, 跃-(躍)跋, 扶-拔, 挽-挽, 狂-狂, 給-給 등이 있다. 즉 다른 글자의 이체로 사용되는 글자가 辭典에 별도의 글자로 실려 있는 경우이다.

§. 戡: “▼巖層巖被繡苔, 時時雲氣自飛來。” [mm_b092_019d].

위의 자형은 ‘戡’을 자형이 유사한 ‘戡’로 필사한 것이다. ‘山’의 위치만 다른 형태인 ‘巖’도 나타난다. ‘戡’과 ‘戡’이 별개의 글자이기 때문에 巖의 오자로 판정하였다. 그러나 ‘戡’ 등처럼 ‘戡’이나 ‘戡’에 다른 구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오자가 아닌 異體로 처리할 수도 있다.

§. 瘵: “寔賴宗社之降▼, 已復日三之朝, 喜何加矣.” [mm_b_069_086d].

위의 자형은 부수의 형태가 다른 것으로 보면 ‘疒’을 ‘疒’와 혼동한 오자로 유추할 수 있다. 그 근거로 이 문헌 외에 다른 곳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을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隸辨』에 ‘病’의 이형으로 ‘病’이 포함된 것을 보면 ‘瘵’이 ‘康’의 이형으로 쓰일 수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 때문에 ‘康’의 이체로 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둔다.

§. 熯: “乃有翌日之瘳, 宿疾頓祛, 豈徒湯▼之奏效.” [mm_b_069_086d].

위 자형의 오른쪽은 ‘滿’이지만, <입력기>에서 ‘화초경입’을 입력하면 ‘火+滿’의 형태의 글자는 검색이 되지 않고 ‘熯’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熯’이 나온다. <고전DB>에서 이 글자를 넣어 검색하면 ‘湯熯’이 20여 건 나온다. 다시 확장하여 ‘湯熯○奏效’를 검색해도 유사한 내용이 나온다. 따라서 이 자형은 ‘熯’의 오자로 판정한다.

§. 懣: “如所謂輕躁忿▼, 錯謬暴亂等過失, 似無可憂.” [mm_b_076_468d].

위의 자형은 문맥으로도 오자임을 파악할 수 있지만, 동일한 내용이 [mm_a_206_381b]에 ‘懣’로 되어 있다. 또한 이 자형의 출처가 1909년의 後期 活字本임을 감안하고 동일한 자형이 ‘平生病痛, 都在於輕燥忿懣上.’ [mm_b_076_397a]에 ‘懣’로 찍혀 있는 것을 보면 오자가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자형은 ‘懣’의 오자로 판독한다.

§. 讒: “彝倫既斁, 天道寧論, 惟此未死, 實有難▼.” [mm_b_072_266c].

위 자형의 위치가 韻에 해당하므로 이 글자는 ‘愛’와 유사한 ‘爰’의 이체로 유추하여 <고전DB>에서 ‘難諉’을 검색하면 ‘諉’이 韻으로 사용된 단어가 140건이 나온다. ‘難諉’은 ‘難忘’과 동일한 의미이다. 따라서 이 자형은 ‘諉’의 오자로 판독한다.

§. 鉄: “實臣之涕泣攢祝, 而至其慢命之罪, 自無所逃, 惟願遇伏▼鉄之誅焉.” [『公車類覽』 v11;61a;5].

위 인용문은 『公車類覽』에 나오는 내용이다. 鉄의 형태는 현재 중국의 簡體字에도 ‘鐵’이 있기 때문에 의심 없이 ‘鉄→鐵’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失’로 보이는 이 자형은 사실 ‘夫’의 오른쪽에 ‘ノ’을 추가해서 ‘鉄’로 쓴 것으로, ‘鉄’의 이체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동일한 유형인 ‘夫→失’의 유형에서는 ‘規→規’만 확인하였고 이와 비슷한 유형인 ‘夫→矢’의 유형에서는 ‘規-規’ ‘窺-窺’ 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예는 『국역조선왕조실록』, 『국역승정원일기』, 『退軒』[B69;075a;1(18後)] 등에서도 나타나는데 원문에 ‘鉄鉄’로 되어 있는 것을 DB에서는 ‘鐵鐵’로 바꾸었다. 그것은 ‘鉄’을 ‘鐵’의 이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鉄’은 『宋元以來俗字譜』에서부터 ‘鐵’의 이체로 쓰이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鐵’의 이체로 사용되었지만 ‘~鉄’로 쓰일 때는 대부분 ‘鉄’을 ‘鉄’의 이체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DB> 45건, 규장각 <원문자료DB> 40건, 한국학중앙연구원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69건이 검색된다.¹⁴⁾

§. 鐵: “其後又有韓愈, 皇甫湜, 李翱, 李觀, 呂溫, 盧同, 張籍, 孟郊, 劉,

14) 조성덕, 앞의 논문, 17~18면 참조.

柳, 元, 白之輩, 聯▼竝轡, 馳驟一時, 高視千古, 亦未聞效陳子昂若李杜楊王而屠割其膚肉者.” [a1:558d:7(乙)].

<고전DB>에서 ‘聯鑣’로 검색하면 50여 건이 나오고 ‘聯鑣’로 검색하면 330여 건이 나온다. 이는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東國李相國集』, 『陽村集』, 『武陵雜稿』, 『思齋集』, 『雪月堂集』, 『於于集』, 『玄洲集』, 『東溟集』, 『冷齋集』, 『明阜全集』, 『研經齋全集』 등의 문집에서 ‘鑣’와 ‘鑣’가 섞여 나온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볼 때 사용빈도가 낮은 ‘鑣’를 ‘鑣’의 속자로 사용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鑣’이 正字이고, ‘鑣’를 俗字로 혼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 敲: “敲<m1>敲</m1>炎采亢. 哀我赤子. 舉將墳壙. 靜循厥咎. 靡所控極.” [b069:096a:1].

위의 내용은 필사본인 『退軒遺稿』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곳에는 ‘敲’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동일 서종의 다른 곳에는 ‘敲’로 되어 있다. ‘敲’를 ‘敲’로 쓴 유형은 1721년에 간행된 『博泉』을 비롯하여 36건이 검색된다. 이와 반대의 경우가 『三淵集』 “若此類反勝於藻賁推敲(敲)편001者爲多. 若乃情非鬱陶. 境非切觸. 而牽率應副.”과 『松塘集』 “鳥劈江烟色. 人行岸竹聲. 禪扉敲(敲)편001月下. 寒磬出西榮.”에서 검색되었다. 1713년에 간행된 『西河集』에는 교감처리되지 않은 상태인 “六合敲蒸未流火. 天上傾瓢雨如瀉. 長風忽卷雲峯崩. 十日繁陰收一夜.”의 내용이 나온다. 이를 근거로 ‘敲蒸’이 ‘敲蒸’로 된 것을 검색하면 11건, ‘敲炎’이 ‘敲炎’으로 된 것을 검색하면 5건이 나온다. 이것을 감안할 때 두 글자를 혼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한 ‘欠-女’의 유형에 해당하는 자형으로는 欲-欲, 歐-歐, 등다. 이와 반대로 ‘女→欠’의 유형으로는 斂-斂, 漱-漱, 激-激, 嫩-嫩, 隄-隄

등이 나타난다. 이 경우 유사자형으로 처리하지 않아 교감주를 달아야 할지, ‘支(支)→欠’의 대체 유형으로 보아 의미에 맞는 내용으로 수정할지 이에 대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 服: “不以棗栗服편001<服>脩而以菜爲宜, 蓋菜用莖者, 取其謹也.”
[a250;305d;3]

위의 내용은 1817년 奎史字로 간행한 『近齋』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책은 活字임에도 ‘服脩’의 ‘服’이 자형이 유사한 ‘服’으로 되어 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은 ‘服’을 ‘服’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지금의 기준으로 말하면 교감처리 없이 바로 대체한 것이다. <한국문집총간 교감지침(8차)>의 16번 ‘段→段’의 원칙을 적용할 때 교감처리 없이 바로 대체하는 유형이다. 이를 근거로 ‘服’을 검색하면 23건이 나온다.

§. 郤: “公大驚曰此大逆也, 亟去聲大義叱郤편001<却>之, 俾無汚我境也, 柳卽歸, 引公言叱却.” [b057;390c;10(丙)].

위의 자형은 『逋軒』에 나오는 내용이다. ‘郤’이라는 글자가 사전에 있기 때문에 교감처리를 하였으나 이것은 <한국문집총간 교감지침(8차)>의 ‘段→段’ ‘痕→痕’ ‘腦→腦’처럼 자주 사용되지 않는 자형을 대체한 것이다. 이것은 자형의 변화로 검토하면 확인할 수 있는데 유사 자형인 ‘ㄱ-β’를 혼용한 경우이다. 조선전기부터 흔하게 사용되던 却-郤, 卯-郤, 柳-郤, 唧-郤 등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앞부분의 ‘ㄱ’이 유사 자형 ‘ㄱ’로 변하여 결국 ‘去’가 ‘吉’로 변하여 ‘郤’라는 辭典에 실려 있는 자형으로 변했기 때문에 오자로 파악하여 교감처리를 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먼저 <한국고전종합 DB>를 검색하여 ‘郤’이 원래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도 DB에는 ‘𤇗’이 8건 검색된다.

§. 煨: “其至行懿範. 固多可書. 而既有天褒之炳▼. 今不可復贅.” [b0 97_107c].

위 자형과 유사한 형태가 포함된 단어를 <고전DB>에서 ‘炳煨’으로 검색하면 380여 건이 나온다. 이 글의 제목이 墓誌銘이고 내용으로 볼 때 훌륭한 인품이 ‘밝게 빛난다’는 의미이므로 ‘煨’의 오자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국문집총간 교감지침(8차)> 28번 ‘痕→煨’을 참고하면 ‘煨-煨’은 자형의 ‘良’과 ‘𠂔’의 순서만 바뀌었을 뿐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자형은 교감처리 없이 바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감 작업은 교감뿐만 아니라 정보화가 되지 않은 원전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동일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상에서 부수나 단순 획의 차이를 가지고 오자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4. 結論을 대신하여

본고는 신출자형을 판독하는 여러 접근방법을 기술하였다. 2장에서는 해당 자형이 十三經, 二十五史, 諸子百家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전텍스트를 검토하고, 전거를 찾기 어려운 자료에 대해서는 <고전DB>를 통해 유사내용과 유사자형을 검토하여 판독하였다. 3장에서는 자형 분석에 의한 방법에 따라 ‘異體字’, ‘異形字’, ‘音借字’, ‘誤字와 校勘’으로 분류하여 판독하였다. 그중 유형이 많은 ‘이형자’는 자형의 簡化와 繁化, 구건의 이동, 類化, 대체, 추가로 세분하였다.

이러한 실례를 통해서 고문헌 연구자들이 부딪치는 신출자형을 판독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문헌에 나타난 신출자형을 판독하고 정리하는 작업은 처음 보는 한자의 음훈을 판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른 한자 자형의 변화와 그 한자를 사용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원전의 교감과 번역과정에서도 병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앞으로 신출자형의 통합적인 정리와 판독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원전자료>

- 姜彝天, 『重菴稿』(『韓國文集叢刊_속집』 111집, 한국고전번역원, 2011.)
- 顧南原, 『隸辨』, 개인소장본, 清代.
- 權 宇, 『松巢集』(『韓國文集叢刊_속집』 7집, 민족문화추진회, 2005.)
- 金始鎭, 『白南集』(『韓國文集叢刊_속집』 66집, 한국고전번역원, 2008.)
- 金震聲, 『古代歷代撮要』, 한국학중앙연구원, 朝鮮後期.
- 金興洛, 『西山集』(『韓國文集叢刊_본집』 321집, 민족문화추진회, 2004.)
- 李 策, 『活齋集』(『韓國文集叢刊_속집』 32집, 민족문화추진회, 2007.)
- 李奎報, 『東國李相國集』(『韓國文集叢刊_본집』 1집, 민족문화추진회, 1990.)
- 李森煥, 『少眉山房藏』(『韓國文集叢刊_속집』 92집, 한국고전번역원, 2010.)
- 李胤永, 『丹陵遺稿』(『韓國文集叢刊_속집』 82집, 한국고전번역원, 2009.)
- 李震白, 『西巖遺稿』(『韓國文集叢刊_속집』 36집, 민족문화추진회, 2007.)
- 李喆輔, 『止庵遺稿』(『韓國文集叢刊_속집』 71집, 한국고전번역원, 2009.)
- 林光澤, 『雙柏堂遺稿』(『韓國文集叢刊_속집』 82집, 한국고전번역원, 2009.)
- 朴汝樑, 『感樹齋集』(『韓國文集叢刊_속집』 8집, 민족문화추진회, 2005.)
- 裴相說, 『槐潭遺稿』(『韓國文集叢刊_속집』 105집, 한국고전번역원, 2010.)
- 邊斗建, 『靑旅文集』 한국국학진흥원, 1961.
- 徐文重, 『記聞』, 한국학중앙연구원, 17세기.
- 徐有本, 『左蘇山人集』(『韓國文集叢刊_속집』 106집, 한국고전번역원, 2010.)
- 徐宗伋, 『退軒遺稿』(『韓國文集叢刊_속집』 69집, 한국고전번역원, 2008.)
- 申維翰, 『靑泉集』(『韓國文集叢刊_본집』 200집, 민족문화추진회, 1997.)
- 申正模, 『二恥齋集』(『韓國文集叢刊_속집』 70집, 한국고전번역원, 2008.)
- 申之悌, 『梧峯集』(『韓國文集叢刊_속집』 12집, 민족문화추진회, 2006.)
- 楊應秀, 『白水集』(『韓國文集叢刊_속집』 77집, 한국고전번역원, 2009.)
- 御營廳, 『御營廳謄錄』, 한국학중앙연구원
- 尹光紹, 『素谷遺稿』(『韓國文集叢刊_본집』 223집, 민족문화추진회, 1999.)
- 尹宣舉, 『魯西遺稿』(『韓國文集叢刊_본집』 120집, 민족문화추진회, 1993.)
- 丁若鏞, 『與猶堂全書』(『韓國文集叢刊_본집』 285집, 민족문화추진회, 2002.)
- 正 祖, 『奎章全韻』, 개인소장본. 1828.
- _____, 『同文彙考』, 국사편찬위원회, 1978.

- 趙尙綱, 『鶴塘遺稿』(『韓國文集叢刊_속집』 63집, 한국고전번역원, 2008.)
趙秀三, 『秋齋集』(『韓國文集叢刊_본집』 271집, 민족문화추진회, 2001.)
趙鎭寬, 『柯汀遺稿』(『韓國文集叢刊_속집』 96집, 한국고전번역원, 2010.)
崔守哲, 『清冷子遺稿』(『韓國文集叢刊_속집』, 65집, 한국고전번역원, 2008.)
沈 義, 『大觀齋亂稿』(『韓國文集叢刊_본집』 19집, 민족문화추진회, 1988.)
編者未詳, 『國朝編年』, 한국학중앙연구원, 英祖 이후.
_____, 『叢史』, 한국학중앙연구원, 朝鮮後期.
行 均, 『龍龕手鏡』, 서울대 규장각.
許 穆, 『記言』(『韓國文集叢刊_본집』 98집, 민족문화추진회, 1992.)
憲 宗, 『公車類覽』, 한국학중앙연구원, 朝鮮.
洪良浩, 『耳溪集』(『韓國文集叢刊_본집』 242집, 민족문화추진회, 2000.)
洪直弼, 『梅山集』(『韓國文集叢刊_본집』 295집, 민족문화추진회, 2002.)

<단행본>

- 劉復·李家瑞, 『宋元以來俗字譜』, 아세아문화사, 1973.
諸橋轍次, 『大漢和辭典』,大修館書店, 1984.

<학위논문>

- 조성덕, 『한국 문집 소재 異體字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인터넷자료>

- 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검색일 : 2015. 2~6월)
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DCH/index.jsp>(검색일 : 2015. 2~6월)
유니코드한자 검색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newchar>(검색일 : 2015. 7~8월)
臺灣 教育部. <http://dict.variants.moe.edu.tw>(검색일 : 2015. 7~8월)
台灣常見植物資料庫. <http://192.83.176.196/plant/plant.html>(검색일 : 2015. 7~8월)
『漢典』의 『異體字』정보. <http://www.zdic.net>(검색일 : 2015. 2~8월)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Chinese Text Project). <http://ctext.org>(검색일 : 2015. 7~8월)
漢字字形規範史. <http://www.joao-roiz.jp/HNG>(검색일 : 2015. 7~8월)

<기타자료>

『한국문집총간 교감지침』, 한국고전번역원, 2012.

How to Recognize and Decipher Newly-Encountered Chinese Characters

Cho, Sung-duk*

This paper is based on my experience of summarizing newly encountered characters into several types. I hope it will be of help to researchers. In reading old documents,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and decide if certain Chinese characters are new to the reader or simply represent a variant form.

In section two, I will discuss a three-point method to recognize difficult Chinese characters; the three points are their use in old texts, their similarity to other characters, and the contents of rhyming dictionaries (韻書). If a researcher believes that the text in question is related to the thirteen classics (十三經) or an early Chinese philosopher (諸子百家), he must first review the text and look to find the same text in the classics. If it is difficult to locate the text in question in the classics, the researcher should then search for similar content. This can be done by using a large database. The third method is using rhyming dictionaries. The researcher should look for the character's rhyme and then search for the same or similarly shaped characters in the book.

By using the way explained above, the researcher can make decisions about the new character shape and assign it to one of five categories: variant (異體字), various structural component (異形字), characters that are phonetic loans (音借字), wrong shape (誤字) and collation (校勘).

Various structural components occur by reason of novelty, simplification, complication, movement, ellipsis, replacement of component, and addition. Also, the wrong shape and collation sections discusses how to review vague characters and divide them into either the category of having the wrong shape or one of various other forms of a character.

(Key words) Newly-encountered Chinese character, Variant, character that has different component, character form of shape, components

논문 접수일: 2015. 10. 20. 심사 완료일: 2015. 11. 12. 게재 확정일: 2015. 12. 03.

* Ideographic Rapporteur Group(IRG) committee member / E-mail : isanjo@empas.com